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1) 안전문제의 인식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특정 개인의 과오와 윤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닌 총체적인 부조리, 무기력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작동체계의 불통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나’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 책임에 대한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체계의 부실, 그리고 허술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반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수대교 붕괴, 월드컵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최근 20여 년간 발생해 왔던 굵직한 사건들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국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사회 곳곳에 여전히 산재해 있고, 이렇듯 엄청난 충격과 상실을 동반한 대형 사고는 그간 정부 중심의 대응체계가 지닌 맹점을 가시화해 놓았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시스템’이 일차로 지목될 것이나 실제로는 그에 앞서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과 공감 부족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문제인식과 공감 확산을 위한 작은 출발이라 할 수 있다.

2)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지금까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지속적인 제도정비와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온 각종 안전사고의 결과는 이러한 제도와 실천운동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이는 그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 확산

내용의 허점이나 다각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관리부실에 우선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운용하는 인적 자원과 지속적인 관리 대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미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해 오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이러한 국가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이웃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과 국민 공감대 형성의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사업이다. 이제까지의 안전관리체계가 관주도의 하향식 전달체계로 작동하였다면, 안심마을 만들기는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며 공공의 지원을 요청하는 양방향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안전사고의 규모와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주민이 스스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협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적 안전망 구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자율적
안전망 구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1) 안심네트워크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지역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근거하여 각각의 주체와 세부사업안이 구성되었다. 사업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심마을 만들기의 전제조건에 대응하여, 크게 주민참여 및 협력네트워크 활동인 ‘안심네트워크 사업’과 지역안전문화 정착·확산의 공간환경으로써 ‘안전인프라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안심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당지역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 협력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자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주민활동과 일련의 소통체계를 일컫는다. 범죄예방, 교통·재난·생활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과 실행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처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리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주민활동과의 소통체계

2) 안전인프라

안심네트워크가 주민주도의 프로그램과 활동이라면 안전인프라는 정부 주도의 공간 및 시설계획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예산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안전인프라의 세부사업 대상 또한 주민들에 의해 선택·제안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사업과 차별성이 있고 주민 활동의 배경으로써

정부주도의 공간 및
시설계획

안전인프라(안전한 공간환경)



경사로 보행안전 길 개선(고성군 간성읍)



우범 골목길 환경 개선(고성군 간성읍)



주택가 주변 주차장 정비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 벽화 조성(광주 남구 봉선1동)



초등학교 앞 스쿨존, 과속방지턱 설치(광주 남구 봉선1동)



독거노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천안시 월성1동) 야간 방범등 설치(광주 남구 봉선1동)



방치된 공폐가 발굴(천안시 월성1동) 안심마을 거점조성, 안심허브센터 신축(순천시 중왕동)

안심네트워크(주민활동)



주민 소통을 위한 문화행사



어린이 안전교육



찾아가는 심장사랑학교



차 없는 거리 시민행사



안전지도 제작

(자료 : 해당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의 사업계획서)

CPTED 개념 도입하여
사고 방지시설 및
장치 설치

안심네트워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안전인프라라는 범죄, 교통사고, 재난사고, 생활 안전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시설물 설치, 공간 정비 및 공간 조성의 방식으로 구현된다. 범죄예방의 경우 CPTED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감시기능과 범죄심리 차단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교통사고 예방은 피해 대상자의 보행안전을 우선으로 각종 사고 방지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재난사고의 예방은 태풍·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위험요소를 정비하며 미끄러짐이나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는 각종 재료 및 보조시설물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민 공동체의 지속적 기획, 운영, 교육 등 각종 활동의 실행 장소로써 건물 등의 거점공간 조성도 포함된다.

3) 안심네트워크와 안전인프라 사업의 특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목표로, 안심네트워크와 안전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현안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비록 지역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심네트워크의 경우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 청소년 우범 방지를 위한 방법 활동이 많고, 교통안전은 어린이 통학 도우미와 불법주차 단속 등이 다수 계획되어 있다. 재난안전의 경우 일부 사업에 제설작업반 등을 구성하였으나 재난에 대한 실제 생활 체감 정도가 낮아 대부분의 사업이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교육 등이 일부 제시되었다. 생활안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노인돌봄 등의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안전인프라의 경우 범죄예방은 자연감시보다 단기간에 설치가 용이한 CCTV나 야간 보안등의 계획이 많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는 ‘학교 가는 길 정비’, ‘스쿨존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로 정비’, ‘가드레일 설치’ 등이 계획되었다. 재난안전은 장마철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나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노후주거지 차량진입로 확보, 골목길 정비, 소화전 설치 등이, 생활안전은 경사로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감재 설치나 핸드레일 설치와 지저분한 거리 정비 등의 계획이 많이 제시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화장실 핸드레일 설치 등 사적 영역도 사업 내역에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네트워크 거점으로 주민행복센터, 안심허브센터 등의 건축물 신축 또는 공폐가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다.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구분		은평구 역촌동	수원시 송죽동	광주남구 봉선1동	순천시 중앙동
안심네트워크 (주민 안전 활동)	범죄 예방	- 마을안전지킴이 및 안전모니터 운영 -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행복마을 한 바퀴 순찰대 운영 - 안심귀가를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	- 부영이 네트워크 100 운영 - 안심마을 치안순찰대 운영	안전마실 및 보듬이 차량 운영
	교통 안전	바른주차 봉사대			
	재난 안전	위킹스쿨버스 운영	- 어린이 등하교 프로그램 운영 -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 - 노인 스쿨존 안전지킴이 운영 - 건강한 마을 만들기	5분대기 안전활동 조직 및 운영 119행복나눔 Festival 13-13 안전 프로젝트 - 노들 안전문화, 행복나눔 확산 100%주민 안전교육 - 마을 안전 가이드, 디자인맵 제작	- 재난대비 물 길 찾기 - 햇라인 신고
	생활 인프라거점	마을 safe존 운영	- 아동 안전지킴이 집 지정 운영 -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단속 - 투명 우산 나눔		- 한솔밥(취약계층) - 분과별 전문가 지정
안전인프라 (안전한 공간 환경)	범죄 예방 시설 설치		- CCTV설치 - 보안등설치 - 우민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지원		
	공간 조성 및 정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동네만들기사업 - 송죽행복정원만들기사업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	- 어린이공원 안전환경 개선 - 보행통화로 안전환경개선	범죄예방 디자인
	교통 안전		유치원, 학원 차량승강장 설치		
	공간 조성 및 정비	- 골목길 정비 - 교통 및 안전시설 설치 - 보행위험물정비 및환경정비	어린이 안심하고 걷는 등하교길 만들기	- 봉선초등학교 주변 통학안전 강화 - 모아아파트 주변 교통보행환경 개선	
	재난 안전	- 골목소화전설치 - 가정용 방재장비 설치	상습침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간 조성 및 정비	배수로 정비	- 대형사고 예방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생활 안전			- 봉선중길 경사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공간 조성 및 정비				
	안전인프라 거점		주민행복쉼터 조성		안심허브센터 구축

천안시 원성1동	거창군 북상면	진천군 진천읍	고성군 간성읍	김포시 양촌읍
	- 안심모니터 봉사단운영 - 자율방범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 주민방범대 운영 - 안전지도 제작	포순이 지점 지정 및 운영	- 방법예방 순찰대 - 자율방범대 방범지원 - 아동 성폭력, 가정 폭력 예방 교육 - 학교 폭력 청소년 보호 활동 실시
	- 농기계 야광관 부착 및 경광등 설치 - 겨울철 제설작업반 운영		포순이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교통안전 지킴이
- 심장사랑 학교 운영 - 지역 안전리더 육성 - 안전지도 작성 - 안전 자원봉사 운영	- 독립가옥 경보시설 설치 - 재난구조 봉사 및 취약지역 복지서비스 제공 - 재난대비 안심차량 운영 - 취약세대 소화기보급	안전시설 일제점검단 운영		- 안심마을 지킴이 상인봉사대 운영 - 이웃1촌 맺기 - 안전문화 운동추진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	주민참여 봉사프로그램 운영	- 행복안심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주민 행복 지킴이 본부 운영 - 청소년 놀이문화 지원사업 - 주민안심 동아리방 운영	취약 가정 돌보미
- 범죄예방지역 CCTV 설치 - 안심방법등 설치	취약지역 CCTV 설치	안전취약시설 정비		- CCTV 설치 -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 - 야산 경계펜스 설치 - 블랙박스 설치
- 이면골목길정비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우범지역 공원 범죄예방환경 조성 - CPTED 활용 골목길 환경조성		전제민촌 정비사업	- 안심공원 조성사업 - 안심거리 조성사업 - 안심벽화사업 -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	- 안심지역 내 폐쇄형 펜스 철거 및 정비 - 안심마을벽화조성 - 간판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과속방지턱 설치	- 사고위험지역 점멸등설치 - 커브길반사경설치 - 위험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및 디자인사업 - 사고 다발지역 선형 개선	교통사고 예방시설 구축		
교통사고 지역 차 없는 거리 조성		취약계층 안전시설 정비	안심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사업	- 자연감시체계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안심마을길 정비 - 고원식교차로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양곡사거리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재해 등 위험지역 환경개선				
재해 등 위험지역 환경개선			안심 비상벨 설치	
	복합 안심센터 신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이번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사업대상 지역의 생활 속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이고, 나아가 해당 성과를 토대로 범국민적 안전문화 인식을 제고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 선례로써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큰 의의를 갖는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다수 시범사업이 제시한 세부사업의 근거와 타당성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지역의 인문·사회·경제·자연환경 등 안전문제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분석이 미흡하고, 단순 사고통계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안전문제와 그 해결안이라는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세부사업은 안전리스크와 주어진 기간 및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을 선택하고 그 우선순위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인 안전인프라의 경우 초기 사업계획에 따라 오랜 시간 지역 사회의 공간환경이 결정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안전인프라 세부내용들은 해당 지역의 상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들과의 상관성이 부족하다.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예산투입 비중이 높은 안심마을 만들기의 경우 지역의 건축·도시 마스터플랜과 연계함으로써 도시 전체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상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과의 상관성

기초현황 분석 일부(수원 송죽동)



(자료 : 수원시정연구원, 송죽동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중간보고회 자료, 2014)

안전인프라 종합계획도(은평 역촌동) : 대상지역 전면도로 재시공



(자료 : 은평구 안심마을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자료, 2014)

기반하여 예산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다수의 사업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안전인프라가 점적으로 분산 배치되는 현상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계획적 검토가 부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계획내용들도 다수 있다. 간판 정비, 벽화 그리기, 문화사랑방 보수, 북카페 조성 등은 여타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 등과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수로·전기·가스시설 정비 등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계획 대상은 동일하더라도 안전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의 전환과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취지 및 예산 범위에 부합하는 시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시공간 요소의 활용 가치가 저하되거나 새로운 불편이 유발되는 점이다. 일부 사업에서 보도와 차도 등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제안하였지만 물리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거나 안전사고와 상관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과도한 교체 및 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끄럼 난간, 가드레일, 방범등 등은 개별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보행 및 차량 통행의 불리함, 사생활침해 등 또 다른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심마을 만들기는 세부사업별 효과분석에 따른 세심한 검토와 주민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의 안심네트워크와 안전인프라 계획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본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생활과

안심네트워크와 안전인프라 계획의 연계

밀착된 안전위협 요소를 발굴하고 대처 방안을 계획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주민활동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전인프라를 안심네트워クの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상기할 수 있고, 각종 교육 활동에서 발생될 예산 대처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의 지속과 확대

결국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는 해당 지역의 생활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공간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국가의 안전망 구축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건축 분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 계획
수립

첫째, 여타의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안심마을 만들기 또한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활동이 주축이 된 안심네트워クの 기획 및 유지·관리는 안전인프라의 계획과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인프라, 즉 보안등·야간조명·보행안전시설·응급의료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은 건축 및 도시설계·토목·기계·전기 등 일반적인 도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조직적 추진체의 지정

둘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안심마을 만들기는 지속적인 공간관리를 위한 주민협정, 주민자력의 관리계획 등을 필요로 한다. 관주도의 사업과 달리 주민주도의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소화하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추진체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을 도모하고 자구적인 예산확보 등을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사업 특성에 따른
재정 지원

셋째, 사업 기획 및 지원 주체는 사전조사 비용이나 공간계획수립 비용과 안전인프라 조성, 안심네트워ク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2013년 시범사업의 경우 별도로 사전조사 비용과 공간계획수립 비용을 책정하지 않아 개별 프로그램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분산·파편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초기 기획업무를 기반으로 적절한 사업범위와 예산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점검과정을 거쳐 각각의 사업비용을 책정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장소중심의 통합적
사업으로의 발전

넷째, 안심마을 만들기의 시행 주체는 타 부처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소중심의 통합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을 비롯하여 문화부·환경부·농림부 등에서 추진하는
장소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내용의 내실화와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이룸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여타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지원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심마을의 지속이란 물리적 공간환경의 개선에 앞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활동이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안전망 시스템과
같은 보다 유연한 운영체계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안심마을 만들기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지역 여건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실행가능한 사업추진 전략과 장기적 지속화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 지속화
방안 고민

참고문헌

- 1 거창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2 고성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3 광주남구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4 김포시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5 서울시청, 안전도시동구백서, 2013
- 6 소방방재청,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2008
- 7 순천시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8 신상영,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서울연구원, 2012
- 9 연제구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10 엄철호 외,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 11 은평구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12 이상민 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2013
- 13 이왕건 외, 「일본의 방범형 안전도시·마을 만들기 사례」, 국토연구원, 2012
- 14 조한숙, 「안전도시 구축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삼척시 안전도시 구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12
- 15 진천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16 천안시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세부 사업 계획, 2013
- 17 한국행정연구원, 안심마을자료집, 2014